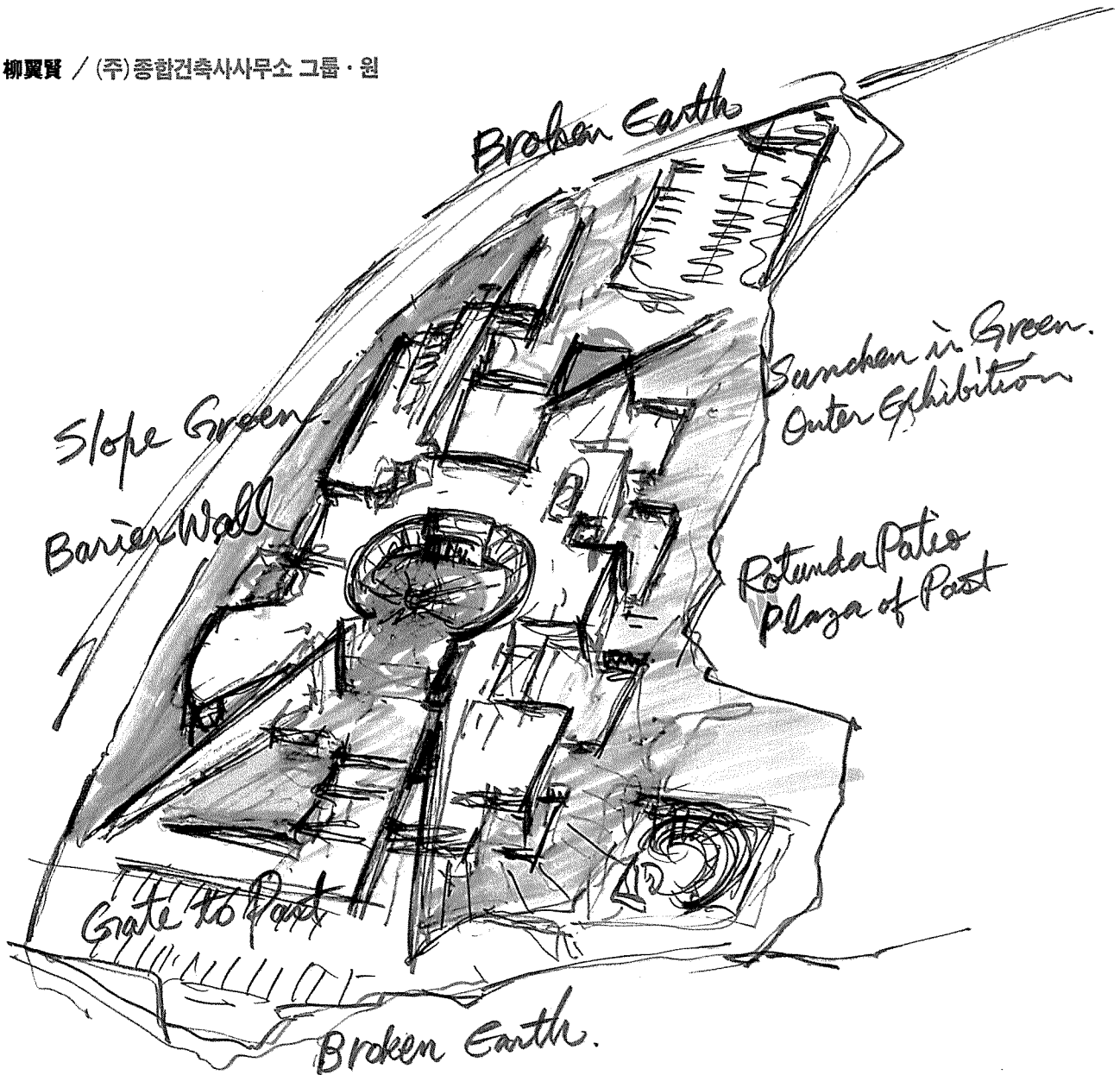


경기박물관 계획안

柳翼賢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 · 원



스케치가는 섬광을 거머쥐듯 마지막 안을 붙잡아 스케치하는 작업은 숨가쁘다. 마치 이 순간이 지나면 영원히 놓쳐버릴 것같은 긴장감에 바쁘게 움직이는 손끝이 된다.

많은 건물들이 이러한 순간의 잉태로 빛을 보고 완성후에도 항상 잉태의 순간을 되새기게 함은 미숙한 건축쟁이에게도 커다란 뿌듯함이다.

경기도립박물관을 위한 이번 스케치도 그러한 것으로 여겼으나 불비한 여건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안으로서도 완결되지 못했던, 그러함으로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던 편린이다.

